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12월 뉴스레터 vol. 38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길이 보이지 않거든 조합원에게 물어보라

채우고 비우고 보통 사람들의 장례

장례 후기 장례가 두렵고 채비를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알쓸신장 자연장이란?

채비 장례문화 캠페인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

조합 소식 충남조합, 2020년 녹색환경인상 녹색일꾼상 수상 外

길이 보이지 않거든 조합원에게 물어보라



제가 처음 서울조합 이사로 선출되던 몇 해 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포 어딘가 후미진 골목 낡은 건물, 별로 넓지 않은 회의실에 삼십여 명 남짓 모였습니다. 밖엔 어느덧 어둠이 깔렸는데 안쪽은 환하고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찬반을 물으니 참석자들이 웃는 얼굴로 일제히 자기 명찰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더군요. 오십여 년 살아오는 동안 술한 회의에 참석해왔습시다만 이렇게 의견을 거리낌 없이 개진하고 신나게 결정하는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까지 선생님의 ‘수렴청정’ 회의, 대학 시절 “학우여!”로 시작되던 선전선동 회의, 군 시절 의견 내란다고 냈다가 ‘줄빠따’로 뒤풀이하던 회의 등 산전수전 다 겪은 후 회사에 입사했더니 그 정도는 약과더군요.

80년 대 후반 자본주의의 꽃 주주총회에 동원되었을 때는 토할 뻔했습니다. “어이 김00은 사장님의 의안 상정하면 바로 손들고 “상도동에서 온 주주 김00입니다. 원안대로 의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하고, 박 대리는 이어서 “찬성합니다” 하라고. 알았지? 이 과장은 잘 지켜보다가 누가 떠들면 조용히 데리고 나가 선물 박스 안기고..”

그런 역정 끝에 만난 한겨레두레 총회가 제겐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여기서 자라고 있었구나. 소중한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 씨앗이 널리 퍼지도록 해야겠구나”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는 전제조건이면서 필수적인 사업 경쟁력입니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로서 돈이나 이익 대신 타인과의 협동이 사업의 핵심요소니까요. 무릇 자기가 한마디라도 거든 일에 애정이 깊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현장은 민주적 운영과 거리가 있더군요.

회의를 가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자료를 갖다 놓고 의결하라 합니다. 문서 작성이나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함께 준비하자고 했더니 놀랍게도 (일에 치여서 아마 진심이 아니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알면 알수록 질문만 많아지니 이 정도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막상 이사장이 되 어보니 매번 회의 정족수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모였더니 일 같이 하자는 사람은 적고 말은 많습니다. 이래도 잘못, 저래도 잘못. 그나마 이렇게 지적이라도 하면 나은 편입니다. 어떤 지역 조합 회의를 갔더니 아무 내용 없이, 그저 말의 성찬뿐이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합원은 감소하고 활동은 부진하며 자료는 엉터리인데 오가는 말솜들은 훈훈한 덕담과 공치사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럴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조합 일 열심히 한다고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업에 바쁜데 맡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 뭐라 입 떼기 미안한 마음,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한편 뜨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15억 원 자본금을 못 모으면 폐업이 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사회에서 대책 논의 중에 조합원에게 알리고 결정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니 이럴 땐 남보다 먼저 적립금을 빼는 게 합리적 행동이라고 현대경제학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갑론을박하다 내린 결론. “조합원의 결정에 맡기자!” 그래서 전 조합원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조합을 살립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1만 원부터 그 달 받은 월급 1백만 원 전액을 기부한 사람까지 무려 4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이 일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훨씬 전 우리 조합이 독단적 일처리, 돈 관리 불투명 등등으로 심각한 조직 분규에 빠질 때마다 집단의사 결정 방식으로 극복하며 소통과 민주적 운영의 중요성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힘들이 쌓여서였을까요?

우리는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서 혁신사업을 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협동조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집단 토론과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작은장례 ‘채비’라는 신규 사업을 의결했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공간 채비를 오픈, 순항 중입니다. 반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은 언성을 높이며 반대했던 그분이 올해 조합원을 제일 많이 가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도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켜야 설사 사업이 실패해도 재기 가능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대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찬성 의견”이라고

이제 곧 총회 시즌입니다. 이번엔 예년보다 조금 낮게 치러봅시다. 잘 준비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섞인 필요와 열망의 비빔밥을 만들어 봅시다.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참여합시다. 한겨레두레는 오늘도 민주적 운영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전체 중 운영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장례



사전 통화를 하는 내내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외아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외려 밝고 힘이 있었다. 빈소에 마주 앉아 상담하는 동안에도 아들은 의젓했다. 아버지가 아들 옆에 자리했다. 수의나 대렴 등을 선택할 때 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몇 만 원이라도 싼 것으로 고르라’고 조언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

힘없이 처진 어깨와 그늘진 아버지의 얼굴엔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이, 아들이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아비의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혹여 그들이 민망할까 봐 고른 수의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국화꽃이 아로새겨진 것이 어머니와 잘 어울릴 거라고, 정말 잘 골랐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수의를 만지는 아들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는 듯했다. 그가 느끼는 슬픔의 질감이 내게도 전해지듯 착각이 일었다.

아버지는 생의 반쪽이었던 아내를 조금 더 잘 떠나보내고 싶지 않을까.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지 않을까.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누가 옆에서 위로해 줄까. 상중의 아들은 밝은 표정으로 조문을 받고 손님을 접대하고 배웅했다. 위로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게 보통 상주들의 모습이라 위로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럴 기회가 적었다. 위로를 준비했던 내 마음이 어색해졌다.

밤이 늦도록 조문이 계속 이어졌다. 아들은 인사도 하고 밝은 표정으로 배웅도 했다. 듻직했다. 우연히 아무도 없는 빈소 안을 들여다보다 혼자가 된 상주가 고개를 돌리고 짧게 우는 모습을 보았다. 혼자이기에 애써 마음을 다잡고 조문과 응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그에게 주어진 숙명이었다. 입관실에서 어머니를 본 아들은 참다 참다 짧은 울음을 토했다. 이번에도 이내 마음을 억누르고 급히 수습한다. 남은 아버지를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안개가 자욱한 아침, 스산한 건물 모퉁이에서 발인을 했다. 버스 안에는 예닐곱 정도의 유가족이 함께 하고 있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잘 참았다. 누군가 가만히 어깨를 쓸어주면 좋으련만 슬픔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그도 나도 알고 있다. 비통함이 가득한 통곡소리는 화장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버스에서 내린 상주는 다시 고요해졌다. 화장을 한 후 목사와 운구해 준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런 모습에 나는 괜히 미안하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도 화로에 모시고, 슬퍼할 시간 없이 식사 대접을 안내하게 하고 무언가를 계속 재촉하고 일을 만들었다. 집안 어른이나 형제들 없이 혼자 일을 치르는 상주가 마음 아파 위로를 건네자 그가 미소를 짓는다.

“엄마가 저 하나만 낳아서 그래요.”

귀한 아들을 두고 엄마는 멀리 떠났고 아들은 그 시간을 추억한다. 어깨가 들썩이듯 슬픔이 배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흘러 온전하게 엄마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아파하겠지. 수목장을 할 때 목사는 흙은 생명이라고 하고 또 모든 어머니는 생명이라고 했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게 또 있을까. 나는 모든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며 어딘가로 떠나는 한 생명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한다.

매일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 삶이 좋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때로 힘에 부친다. 내 위로가 아주 커다랗고 넉넉해서 무한하게 퍼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다만 사람들이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서로 사랑하다가 편안하게 떠났으면 좋겠다. 당신과 함께 해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 더할 것이 있겠는가. ✨

김윤식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지도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이번 호의 글은 한겨레두레에서 발간한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장례가 두렵고 채비를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저는 2020년 11월에 채비를 통해 아버지 장례를 치른 조합원입니다.

평소 후기나 글을 남기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저와 같은 마음 그리고 상황인 분들께 진솔한 후기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올해 9월,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12월 건강검진에도 특이사항은 없으셨는데 이미 암이 온몸에 많이 전이되고 기대수명이 6개월이 안 된다고 하니 큰 슬픔 속에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 30대 중반의 나이로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장례를 치른 경험이 없는 데다 막상 준비를 하자니 장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돈이 든다는 점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되는지도 몰라 막연하게 장례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언니 지인을 통해 ‘채비’를 소개받았고 언니와 함께 충무로에 있는 채비홀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환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며 여러 설명을 들었는데 상업적 마인드가 아니라는 점과 맞춤형 장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합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근 두 달만인 11월 18일 임종하셨고, 바로 채비에 연락을 드려 장례지도사 최대영 과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종 전날 아버지를 보았지만 임종을 못 봐서 가슴이 무너지던 저희 가족에게 안치실에서 잠깐이나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1일 가족장’으로 장례를 결정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이 많지 않은 것인데, 간소하게 가족 중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입관식’이었습니다.

편안히 고운 수의를 입고 계신 아버지가 주무시는 듯했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꽃 장식위로 아버님을 모실 때 눈물이 많이 났네요. 아버지의 몸을 너무나 귀하게 해주셨고 온 힘을 다해 매듭지을 때 땀을 흘리는 것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전에 더 함께 시간을 못 보낸 것, 못해 드린 것이 가슴 저리도록 죄송하고 힘들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보니 이 장례도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마냥 울다 끝날 수 있는 장례를 슬픈 감정만 쏟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마다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게 도움 주어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발인 날 유언이라며 본인도 이와 같이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씀하셔서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스럽게 장례를 이끌어 준 최대영 장례지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례지도사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고인과의 이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준 채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채비를 통해 많은 유가족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김수정 조합원



자연장(自然葬)이란?



우리나라 장례방법은 조선시대 이후 매장 위주에서 근래에 들어서는 화장 위주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화장률이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 이후에 골분을 모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대부분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에서 요즘은 점점 친환경 장법이라고 하는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고 장사 지내는 방식입니다.

자연장 제도는 매장 묘지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1. 자연장의 정의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2. 자연장의 종류

-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 안장 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 사항

1.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됩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2.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용기의 재질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
-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3)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3. 자연장지 내 제한 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 야영, 소란, 초불을 피우는 행위 등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

설치주제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공공법인
사용대상자 제한	친족관계		종중, 문중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	제한없음
조성 면적 제한	30㎡ 미만 1개소에 한함	100㎡ 미만 1개소에 한함	2천㎡ 이내 1개소	4만㎡ 이하 1개소	5만㎡ 이상
표지설치 규격	200cm ² 이내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수목1그루당 1개)				
인허가 규정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사항	
설치제한지역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내 어머니 간병일기

15. 어머니의 파안대소

어머니가 파안대소 하신다.
대체 얼마만인가.

집에 오자마자 살림 정리부터 시작하신 정리의 달인 어머니.
아들의 우스개 소리에 크게 웃으신다.

어머니의 웃음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천만불짜리 웃음도 이보다 더 귀하지는 않으리라.

치통 발발에서 구강암 말기 진단,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이어지는 8개월 동안 고통에 지배당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웃을 수 없었다.

누구나 가진 웃을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었다.
웃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이제 겨우 한 고비 넘었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
태산준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길에서 더 자주 웃음을 보았으며 좋겠다.

어머니의 환한 웃음을.
(4.27)



17. 일상의 기적

일상이 기적이란 말, 진부한 것 같지만 결코 진부하지 않다. 대단한 것이 기적 같지만 일상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만큼 큰 기적도 없다.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린 세계가 그것을 증명한다. 세계는 지금 공중 부양이나 휴거 따위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가.

어머니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며 새삼 그것을 느낀다.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시는지 빨래도 손수 개고, 오늘은 드디어 혼자서 미음도 떠 드셨다. 워낙 정갈한 분이신데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환자가 일상을 되찾는 데는 치료가 중심이지만 충분한 영양의 공급도 그만큼 중요한 듯하다. 고기, 생선은 물론 기름기 있는 것은 참기름도 다 못 드시고 오로지 미음만 드시니 기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았다.

생기탕도, 흑염소 진액도, 헤모힘도 단백질 음료도 날마다 드시지만 도무지 기력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조언을 받고 옥타미녹스 4500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다. 작은 과립 한 포 드시고 바로 기력이 돌기 시작했다. 과립 한 포가 링거 한 병 맞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될 수는 없겠지만 음식으로 영양보충이 힘든 분들은 한번 참고 할만 하지 싶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끊임없는 공부와 정보 수집이 필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 정보를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모든 환우들, 가족 분들의 건승을 빈다.

(5.13)

강제윤 | 시인



* 뉴스레터 채비는 강제윤 시인의 허락을 받아 그의 ‘간병일기’를 편집해 4회(35~38호)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문은 <https://url.kr/SWxB9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말하다

416 기억저장소



4.16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는 4.16기억저장소(소장 이지성, 도연 엄마) 구술 증언팀(책임 이현정,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이 2015년 6월부터 4년간에 걸쳐 진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증언사업의 결과물이다. 피해자 가족 88권, 잠수사 4권, 동거차도 어민 2권, 유가족 공동체 단체 6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구술자들의 발화를 소리대로 전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육성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술 내용을 독립된 권의 책으로 엮어냄으로써 피해자들의 기억과 경험이 지니는 개별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4.16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는 그 양과 질의 면에서 구술사 연구의 한 획을 그을 만하다. 4·16기억저장소의 구술증언사업은 2015년 6월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 구술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어 왔으며, 세월호 참사를 좀 더 정확하고 다각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참사 피해자들의 목격담과 경험은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국가기관과 언론의 기록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거나 왜곡되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게 안긴 죽음과 고통의 충격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끔찍한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생존자 가족, 동거차도 어민, 잠수사 등등, 참사의 초기 과정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수집했다. 구술자는 이 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분 중에서 선정했으며, 참여 과정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4.16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는 국가와 언론의 기억 왜곡에 대한 참사 피해자들의 자발적 저항의 산물이다.

구술증언 수집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면담자는 연구자이자 참사를 겪은 공동체 시민으로서 최대한 윤리적이고자 노력했다. 구술자마다 매회 약 2시간씩 3회에 걸쳐 음성 녹취와 영상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증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자는 큰 틀에서 공통 질문지를 사용했다. 공통 질문지의 내용은 참사와 구술자 간의 관계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가족 구술의 경우 1회 차 ‘참사이전의 삶, 팽목항과 진도에서의 경험, 자녀에 대한 기억’을, 2회 차 ‘참사 이후 투쟁과 공동체 활동 경험’을, 3회 차 ‘참사 이후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깨달음, 자녀의 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였다.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채비 장례문화 캠페인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시작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작은장례’로의 변화는 나의 결심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모아질 때,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진정한 추모가 있는 장례문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먼저 동참해 주세요.

캠페인 사이트 www.chaebi.life/campaign 에서
작은장례 온라인 지지서명 및 지지피켓에 참여해주세요



작은장례를지지합니다



[충남조합] 2020년 녹색환경인상 녹색일꾼상 수상



충남한두레협동조합(이사장 박갑주)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2020년 녹색환경인상 시상에서 녹색일꾼상을 받았습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충남한두레협동조합조합과 2019년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로 의미 있는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왔습니다. 올해 초에 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위기에 놓인 천안소재 일봉산 살리기 시민활동에 함께 동참하였고, 천안시민관합동위크숍에서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결의하였습니다.

2019~2020년 2년간 사업을 펼쳐 천안시 일회용품규제 조례제정에 앞장섰고, 도의료원과 천안소재 민간장례식장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 시범사업 시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회용품 없는 시축제 예산과 민간장례식장 식기세척 서비스 지원 예산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충남조합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강원조합] 이웃과 함께하는 ‘연탄, 난방유 지원행사’



지난 12월 6일, 강원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사장 이경상)은 지난해에 이어 이웃과 함께하는 ‘연탄, 난방유 지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 추천, 유케어 센터 추천으로 난방류 1드럼씩 2가구, 연탄 300장씩 4가구 지원하였습니다. 조합원 참여로 이웃을 돕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11월

박은선 조합원 부친상
방승범 조합원 부친상
김수정 조합원 부친상
정상영 조합원 빙모상
김범석 조합원 부친상
이정환 조합원 부친상
송착석 조합원 부친상

조태진 조합원 조모상
노원희 조합원 자매상
류락규 조합원 부친상
김의선 조합원 모친상
이무웅 조합원 배우자상
문경은 조합원 부친상

이준희 조합원 모친상
김재훈 조합원 모친상
이옥경 조합원 부친상
이해원 조합원 자매상
이경희 조합원 배우자상
신철승 조합원 모친상

10월

정은주 조합원 부친상
황현실 조합원 부친상
권필숙 조합원 시부상
이용주 조합원 지인상
류형수 조합원 모친상
권구홍 조합원 부친상

정영옥 조합원 빙부상
한승진 조합원 빙부상
정태기 한겨레신문사장
박문식 조합원 동서상
최주일 조합원 모친상
배우익 조합원 부친상

허성범 조합원 조부상
김민숙 조합원 부친상
이용봉 조합원 모친상
이명재 조합원 지인상
박정숙 선생 민족통일장

9월

배우익 조합원 부친상
장수련 조합원 부친상
이재경 조합원 부친상
이주연 조합원 시부상
윤석위 조합원 사촌상

송민제 조합원 부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이상덕 조합원 모친상
최영선 조합원 모친상

황덕주 조합원 부친상
장혜경 조합원 시부상
김인철 조합원 배우자상
백찬홍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제 31호 |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제 32호 | [24%의 기적] 이사의 추억
[채우고 비우고] 기억과 사진
[장례 후기] 효도하는 법



제 33호 |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제 34호 | [24%의 기적]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채우고 비우고]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장례 후기]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제 35호 | [24%의 기적] 이 좋은 거 널리 알리자
[채우고 비우고] 내 슬픔에 절을 하고
[장례 후기] 한겨레두레와의 뜻 깊은 인연



제 36호 | [24%의 기적] 협동조합도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우고 비우고] 애도에 관하여
[장례 후기] 친구의 새로운 여행길이 가법기를



제 37호 | [24%의 기적] 두 마리 토끼 잡는 협동조합의 사업 원칙
[채우고 비우고]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장례 후기] 저부터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